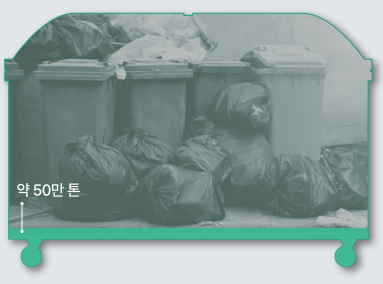
2021 가정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·자원화 현황

내가 버린 쓰레기 지금쯤 어디 있을까?

얼마나 버리고 있을까?[1]

대전시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적으나, 음식물류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.

연간 생활폐기물[1] 발생량



17개 지자체 중 13위
전국 발생량의 3.0% 차지

1인당 하루 발생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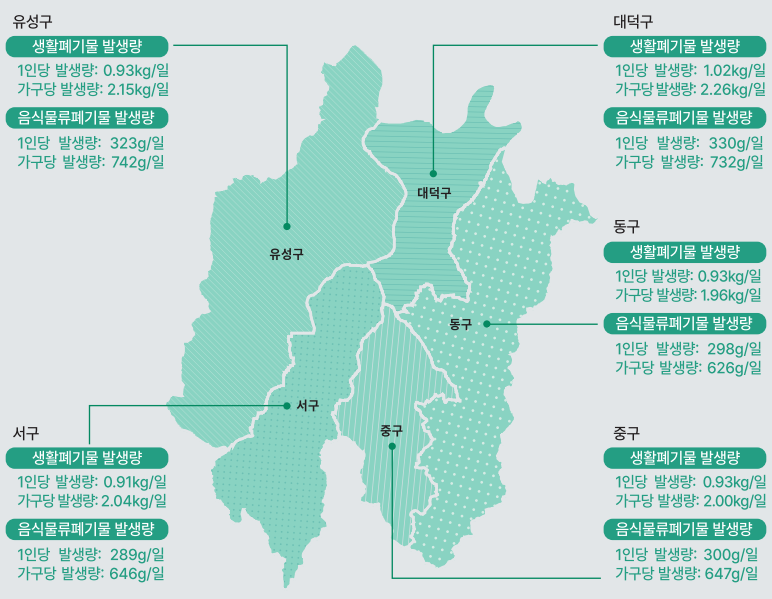
1인당 하루 발생량 0.94kg
전국 평균 0.87kg보다 많음

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[2]차지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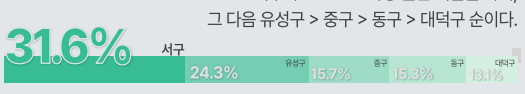
17개 지자체 중 4위
생활폐기물의 32.6% 차지
전국 평균 29.8%보다 높음

대전 발생량 / 전국 평균 발생량

5개 구 중 생활폐기물 총량은 '서구'가 가장 많고, 매일 한 명당·한 가구당 배출하는 양은 '대덕구'가 가장 많은 편이다.



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인구수와 비례하고 있으며,
서구가 31.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,
그 다음 유성구 > 중구 > 동구 > 대덕구 순이다.



대덕구는 시민 한 명당 매일 1.02kg,
한 가구당 2.26kg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며,
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였다.

한편, 대덕구의 시민 한 명이 매일 배출하는
음식물류폐기물은 330g으로 5개 구 중에서 가장 많다.
유성구는 한 가구에서 매일 음식물류폐기물을
742g을 배출하며, 5개 구 중에서 가장 많다.

1)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①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, ② 재활용품 분리배출(재활용가능자원), ③ 음식물류폐기물로 구분
2) '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' 통계 수치: 생활폐기물(가정) 발생량에서 '종량제봉투에 혼입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 값'과 '분리배출 된 값'을 합한 값

재활용품 분리배출 성적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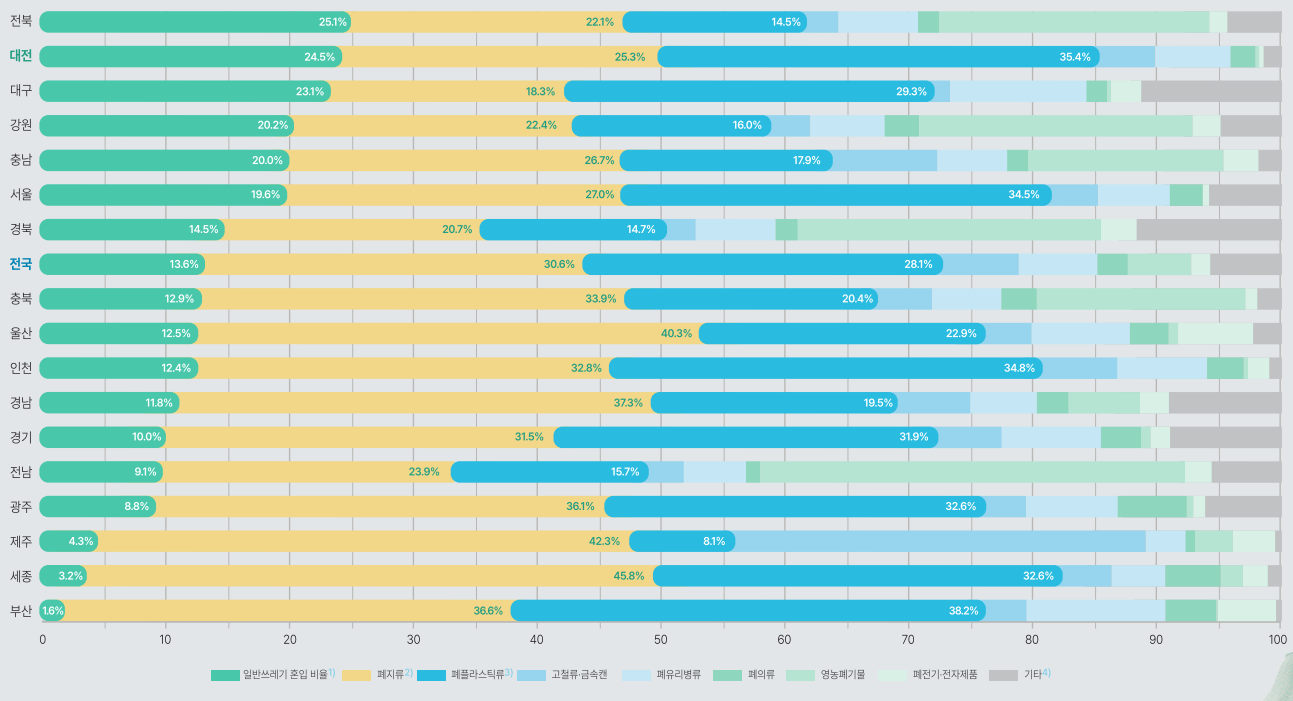
전국 대비 '대전시'에서 가장 많이 버리는 재활용품은?

전국 평균 가장 많이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종이팩을 포함한 '폐지류'이며, 대전시에서는 비닐, 페트병과 같은 '폐플라스틱류'가 35.4%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. '폐플라스틱류'의 차지 비율은 17개 지자체 중 2번째로 높다.

일반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대전시

대전시의 일반쓰레기 혼입 비율은 24.5%로서 17개 지자체 중 2번째로 높다.
'유성구'의 일반쓰레기 혼입 비율은 30.1%로 5개 구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은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다.
반면, '대덕구'는 11.9%로서 일반쓰레기 혼입 비율이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재활용에 적합한 물품들이 배출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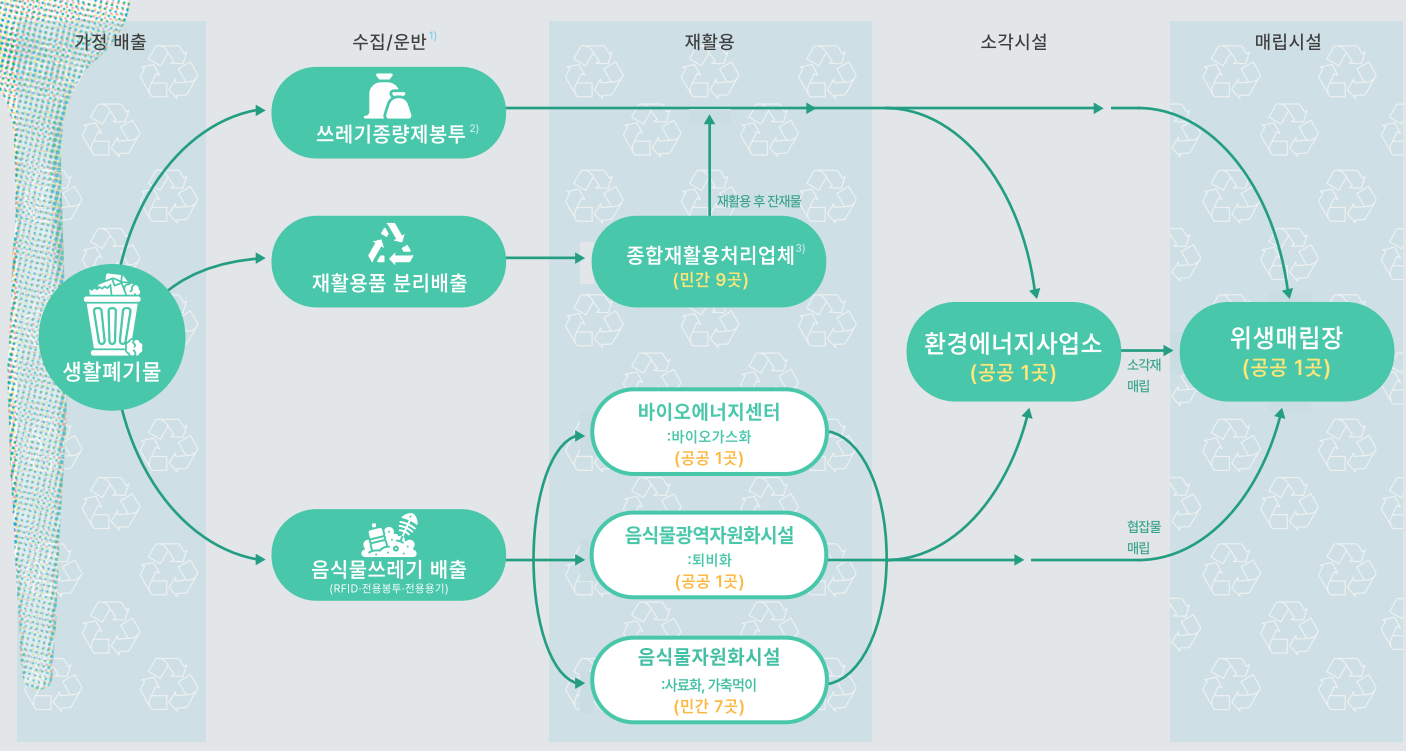
17개 지자체 및 대전 5개 구의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(2021년)



1) 통계상 용어는 '재활용잔재물'이며,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재활용목적으로 품목별로 선별되고 난 후 다시 폐기물로 배출되는 양
2) 폐지류: 종이팩 포함
3) 통계상 용어는 '폐합성수지류'이며 비닐류, 발포수지류, PET병 등을 포함
4) 폐고무류, 폐섬유류, 조명폐기물, 폐전지류, 폐식용유, 폐가구류 등을 포함

생활쓰레기의 여정[1] [2] [3] [4] [5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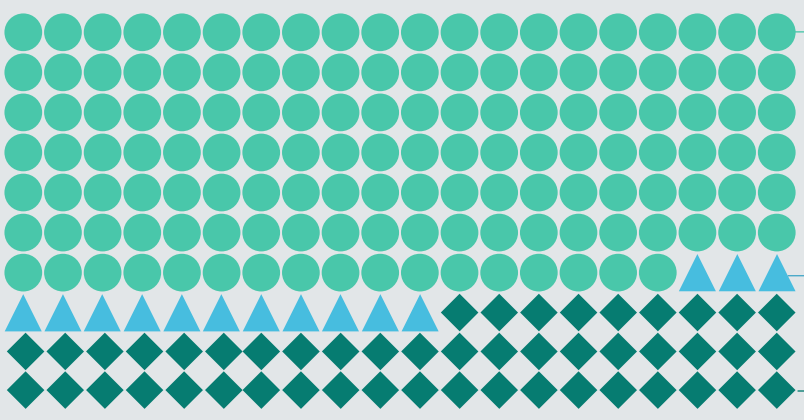
대전시의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시설 1개(금고동), 소각시설 1개(신일동), 음식물자원화시설 2개(금고동)
재활용품의 경우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(재활용품 처리시설)는 없으나, '민간 종합재활용업체 9곳' 등이 있다.



1) 도안신도시는 '크린넷시설'을 통해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하 이송관로를 이용하여 집하장까지 수거·운반
2)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 (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실시)
3) 영업 대상 폐기물이 '생활폐기물'인 재활용처리업체이며, 참고자료인 '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'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그 밖의 기타 시설은 미표현

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?[1]

발생한 폐기물은 소각, 매립하기보다는 먼저 순환이용, 재활용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.[6]



재활용 68.3%
17개 지자체 중 2번째로 높음
전국 평균값 54.7%보다 높음
재활용률은 매년 변동성이 있지만 2018년(71.5%)에 비해 감소
분리배출 된 '음식물류폐기물'은 100% 재활용 중!

소각 7.0%
17개 지자체 중 16번째로 높음
전국 평균값 29.9%보다 낮음
소각률은 2018년(14.7%)부터 계속 감소, 매립률이 대신 증가

매립 24.6%
17개 지자체 중 4번째로 높음
전국 평균값 14.8%보다 높음
매립률은 2018년(13.8%)부터 꾸준히 증가,
2021년에는 24.6% 도달

참고 자료
[1]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 (2021),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(연도별 참고)
[2] 한국환경연구원(2017),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 연구(II)
[3] 환경부(2021),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
[4]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(2023.12.10.), '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, http://www.kwaste.or.kr/bbs/content.php?co_id=sub0403
[5]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(2023.12.7.), 환경사업, https://www.dcco.kr/web/contents/view.do?mId=69
[6]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(2023.12.14.) 폐기물관리법(법률 제18853호, 2022.4.26., 타법개정),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(법률 제19208호, 2022.12.31., 전부개정)

대전세종연구원 도시정보센터
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URBAN INFORMATION CENTER

발행처 도시정보센터 **발행인** 김 영 진 **편집장** 주 혜 진
작성자 김 혜 영 **발행일** 2023. 12. 31. **디자인** 김 승 하